

<http://m.blog.naver.com/idsay9942/140177745257>

비자 신청 방법이 또 변경 되었다 ㅋㅋ

취업으로 가는 경우, 회사가 멕시코 내에서 먼저 승인을 받아야함~



그리고 원본 서류와 허가서를 받아서 한국 내 멕시코 대사관에 본인이 가서 신청~

즉, 멕시코 이민청에서 처리하는 시간도 기다려야 하고 (과연 얼마나 걸릴까나??)

허가서를 발급받으면 국제 우편으로 서류도 받아야하고,

멕시코 대사관에 가서 신청하고 10 일을 (주말 제외) 기다려야 함.

한국에서 비자 받기까지 꽤나 긴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입국해서 받아야 하는 fm3(외국인 등록증) 발급 기간만 해도 10 일이 걸리는 곳인데

회사 서류와 개인 서류까지 검토를 하고 허가를 내주려면

멕시코에선... 참으로 긴 시간이 소요되지 않을까 싶음 ㅋ

[illegible]

더 기가 막힌 비자가 추가 되었다..


보통 발령으로 나갈 경우 해외이사를 진행하는데,

해외이사 하고 싶으면 비자를 추가로 받으란다 ㅋㅋㅋㅋ

이름하여 화물비자~!

취업비자 수수료가 USD 36.00

화물비자 수수료가 USD 127.00

왜.....이럴까 

글이 길기때문에 잡소리 집어치우고 본론.

앞서 안내문 첨부한대로

멕시코 비자 신청 시간은 평일 오전 9시 ~ 12시 까지다.



지난번, 또 다시 변경된 이민법에 근거한 서류들을 추가로 준비하여 제출.

사진은 또 다시 변경되기 전에 찍은걸로 그냥 냈는데 별 말 없었다.

기존 : 3.5 X 4.5

변경 : 2.5 X 3.5

멕시코 회사에서 이것저것 많이 보내주셨고,

무얼 빼야 할지 몰라서 검토해달라고 부탁했다.

명시된 서류만 제출하면 된다고 했지만 훑어보더니 필요할지 모르니

제출하라길래 두고 옴.



## 2. 법인 명판과 인감이라고 명시되어 있지만...[멕시코, 한국]

멕시코는 서명이 인감 역할을 한다고 한다;;

그래서 멕시코 서류는 모두 명판과 법인장님 서명을 받았음.

한국 회사 서류는 모두 명판과 인감을 받았다.

네모난 직인이 들어가는 서류가 있지만(재직증명서) 그냥 통일함.

## 3. 회사 공식 문서 (레터 헤드 사용) [멕시코, 한국]

레터 헤드란 회사 로고가 박혀야 된다는 뜻이다. 이건 별거 아닌데.

요즘 발령장이나 출장증명서 이런거를... 뽀뽀한 종이에 액자 넣어서 주는데가 있나?

게시판 공고, 결재문서 전달 등으로 하지 않나.

하지만 필요함. 문구점에서 구입 가능함. 뽀뽀한 종이에 컬러로 인쇄하면 됨.

## 4. 출장 증명서, 발령장 [한국]

멕시코에서 급여를 받는다는 말이 반드시 명시 되어 있어야 한다.

근로자의 인적사항과 업무 등 안내문에 나온 사항은 모두 작성해야한다.

멕시코에서 보낸 초청장과 한국의 출장증명서, 발령장에 작성된

근로자의 파견 근무 기간이 같아야 한다.

## 5. 급여 명시

위에 언급하고 또 말하 듯... 반드시 반드시~! 표기 되어야 한다.

어디서 (한국 OR 멕시코) 받는지도 반드시 작성!

안내문에 샘플로 첨부해준걸 보면 월 급여 3 천불이라고 되어 있는데

급여가 그 이하일 경우 리젝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무턱대고 미국비자 따라하는건지.

멕시코 현재 직원들 급여가 저정도가 안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 a

## 6. 은행잔고 증명서 제출 시

깜빡하고 표시를 안했다.

신규 취업자가 아니라서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을 제출했지만

아닐경우 6개월치 은행 잔고 증명서를 영문으로 발급받아야 하며

명시된 금액은 즉시 현금화 가능한 예금만 가능하다. (펀드, 주식 등등 이런거 안됨)

## 7. 수수료

없긴 개뿔이..... 안내문에 잘못쓴거란다.

39,200 원 냈음.

난 동반비자 신청 안하고 신랑 비자만 받았으니까!!

동반비자는 나중에 신청할 계획이니.....까먹기 전에 포스팅 귀귀~

안그래도 블로그 초보에 이웃도 없는데

도움됐으면 댓글 좀 써주세요~!!

돈도 안드는데...

컨디션이 매우 안좋아 음기가 강하므로 음습체..

● 혼인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

## 1. 번역

동사무소 방문하여 발급 후 번역사에 팩스 전달.  
직접 해도 되지만 우린 스페인어 못함;  
우리가 사는 지역엔 스페인어 번역사가 없어서 인터넷으로 찾음.  
선입금 해야함.  
당일 메일로 받았음.

## 2. 공증

원본, 번역본, 신분증, 도장 지참하여 공증 사무실 방문.  
번역자에 본인 이름, 사인하라고 시킴.  
말기고 기다리면 한글 + 영어로 공증해줌.  
(공증도 스페인어로 해야되는건가 헛갈려 혼났으나, 결론 상관없더라;)

## 3. 아포스티유 발급 - 외교통상부

종각역이나 광화문역에서 매우 가까움.  
우린 1 호선 노선이므로 종각역에 내려서 걸어감. 5 분걸림  
길치인 내가 그냥 찾을 정도로 엄청 쉬움!!  
참고로 미국 대사관 근처임.  
코리안리빌딩 4 층으로 올라감.

수수료는 건당 일천원~~~~~





올루 들어감~ 친절하게 아포스티유라는 글자를 확실하게 보임!  
 사진엔 안보이지만...  
 컨디션 난항.. 음기가 강함..  
 그래도 포스팅 하겠다고 사진 찍음.  
 하지만 부끄러워 찍을때 소리안나는 어플 이용;;



들어가자마자 왼쪽에 번호표 뽑는 기계들이 주루룩~  
 공증을 받았다면 왼쪽에서 두번째 기계에서 번호표 뽑음.

번호를 부르면 준비된 서류 제출  
(공증까지 끝낸 서류와 신분증만 있음됨)  
오전 11 시 40 분에 도착하여 안타깝게도 점심시간이 끝나면 찾으러 오라 함 ㅠ  
오후 2 시반 전에 제출 시 당일 발급됨.

엄~~~~청 친절함!!!!!!  
막막! 칭찬합니다 뭐 그런거에 올려주고 싶었음!



우리도 점심먹고 재 방문.  
문 밖에 기다란 의자가 있고 따뜻하기 때문에 다른데 안가고 거기서 쉬면서 대기.

드디어 발급!  
뒷장에 찍어준 저거임 ㅋㅋ

RECEIVED  
BUREAU DE LA SÉCURITÉ NATIONALE  
Ottawa, Ontario  
1984

RECEIVED  
BUREAU DE LA SÉCURITÉ NATIONALE  
Ottawa, Ontario  
1984